[제2016-037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

배포일시	2016.6.20.(월)	담 당 자	Daniel Kim 323-936-3019

2016년 한국 역사 • 문화 교육자 세미나 개최

▶ 행사명 : 2016년 한국 역사 • 문화 교육자 세미나
▶ 일 시 : 2016.6.20(월) – 6.24(금), 08:30am – 16:30pm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주 최 : LA한국문화원, 국제한국학회(National Korean Studies Seminar)
▶ 붙 임 : 사진자료
▶ 문 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9, 교육담당 Daniel Kim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이 진행하는 미국 교사대상 한국 역사·문화 교육자 세미나가 이기철 총영사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6.20(월)부터 5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K-12 학교의 교사를 비롯하여 대학교수, 교육행정가등 LA통합교육국을 중심으로 일리노이, 켄터키, 텍사스 등에서 60 여명이 참석하였다.

격려사에서 이기철 총영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80여개국 중에서 한국은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며 이러한 발전은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성장사는 학생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을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총영사는 "60여 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최 단시간에 바뀐 것은 물론, 과거 개도국 중 20-50클럽 최초 가입(일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세계 무역순위 6위, 구매능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가 EU국가들의 평균과 맞먹는 등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분야 또한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에서 지난 5년간 세계 20-22위에 랭크 되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이고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국가보다 상위라고 말했다. 한국의 성공사례는 학생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그 예로 ▲한 국가의 운명은 국민의 태도에 달려있다 ▲한국의 사례는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공산주의, 통제경제보다 우수함을 보여준다 ▲미국의 한국을 위한 희생과 지원은 결국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한국의 성공사례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좋은 소재이며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한국전과 참전용사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한국 알리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세미나 참석자중 텍사스주의 Horn High School 에서 참석한 그레그 힐(Greg Hill) 세계 지리학 교사는 "한국에 대해 교육받는 기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이 세미나에 대한 정보를 알게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한국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되었다. 곧 Florida 주 Tampa 시의 지리학 교육자들의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이 한국학 세미나에 대해 알려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의 학교 학군에서도 있을 발표회 때 이 세미나가 얼마나 유익한 세미나였는지 다른 교사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한국은 세계 지정학(World Geopolitics)의 센터에 있는 나라이다. 그런만큼 미국의 지리학 교육자들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매우 값지게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LAUSD 학교의 사브리나 구스틴(Sabrina Gustin)은 학교의 간호사로서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의료분야에서도 타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Flu 접종 주사를 받기 싫어하는 한인 가족들을 종종 봤다. 문화차이 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만큼 타 문화에 대해 가르침을 주는 이런 세미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LAUSD 2 가 초등학교에서 참석한 라나나 루보비치 (Rananah Lubobitch)교사는 “이 세미나를 홍보하는 자료에 나온 스케줄을 보고 이렇게 포괄적이고 여러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에 매우 감동적이어서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가르치는 학교에는 히스패닉 학생들이 많은데 한인 학생들도 몇명있다. 언제나 타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자들을 위한 세미나는 없다. 그래서 이 세미나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6.24(금)까지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세 이해와 남북통일, 한복쇼, 민화교실, 한글, 한국음식체험, 한류, 한국의 철학과 종교, 우정의 종각 견학 및 연날리기, 한국전쟁의 이해, 한인 이민사, 한국전쟁의 이해, 태권도 시범, 다도체험 등 5일간 다채로운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기철 총영사의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정리한 “Successful Development Story of South Korea” 글이 포함된 한국 역사·문화 수업의 지침서 Common Core: Korea 책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끝.

<붙임>

총영사 격려사

(Mary Conner선생 인사말)

2016 Korean History & Culture Seminar
for American Educators

국악체험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
LOS ANGELES

한국문화원
EXIT